

NO. 1

〈가〉에서는 확실한 유전적 정보를 이용하여
정확한 결론을 도출해 냈고, 그것을 통해 규
칙성을 발견했다. 암별과 수별이 태어날 때 필요
한 부모는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
진리이기 때문이다. 하지만 〈나〉는 예측을 통
해 규칙성을 찾아낸 예로, 불확실성을 전제로
하고 있다. 미래의 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
는 없지만, 변동된 주기를 파악함으로써 주식이
격의 변동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단언
한다. 엘리어트는 이러한 현상을 일정하고 객관
적인 법칙에 의해 일어난다는, 즉 결정론의 입
장에서 이를 말하고 있다.

하지만 〈다〉에서는 ‘필연적인 것’과 ‘우연
적인 것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객관적 진리라
고 주장한다. 과학은 예측 불가능함, 비결정론
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
주장하는 과학자들과, 그 안에서도 과거의 자료
에서 수 많은 규칙을 찾아 낼 수 있다고 말하
는 과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과학이란 어느 한
부분에 편중된 것이 아닌, 과학적 객관성과 불확
실성이 공존해 있는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이러한 관점에서 〈나〉는 우연한 현상이 포함
되어 있는 현상에 대하여 규칙성을 찾고 있으며
그것에 결정론을 적용하여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
하려 하는 과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. 비록
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규칙이 일정하다고 할
지라도 과학의 예측 불가능함을 고려하면 규칙은
예측불허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지, 규칙을
통해 미래의 상황이 결정되어진 것은 아니기
때문이다.